

복식에 나타난 五行色 의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의상과
 조교수 강 윤 숙

| 目 次 | |
|--------------------------------|--------------|
| I. 序 論 | 1. 國 運 |
| II. 陰陽五行思想 | 2. 婚 姻 |
| 1. 음양 | 3. 복식에 나타난 색 |
| 2. 오행 | IV. 結 論 |
| III. 복식에 나타난 五行色에 의한 習俗의 의미 | 參考文獻 |
| | ABSTRACT |

I. 序 論

복식에 나타난 服色은 민족, 풍토, 문화, 정치 등의 영향을 받아 답습되어 왔다. 복식에 나타난 복색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시대적 변천을 거치는 동안 중국문화의 틀을 벗어나 우리나라만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문화배경 위에 복식에는 의례적인 요소가 복식제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복식제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 문화에서 형성된 중국 관복제도가 들어와서 상·하층부로 양분되어 시대적 변천 과정에서 색채문화를 지닌다.

고대의 색은 철학적 개념과 思想的인 意味를 지녔으며, 색의 선호와 성향은 전통성을 형성하면서 생활 속에 수용해 왔다.

陰陽五行思想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권에서 발전하였다. 음양오행설에 의한 바 복색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소는 고위층복과 서민복 등에 사용되었고 금하기도 하였다.

五行色인 오색(靑, 赤, 黃, 白, 黑)은 계급사회에

서 신분을 복색으로 구별하였으며 복색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복식에 나타난 五行色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밝히는데 있으며, 연구 내용은 기원과 의미, 사상 그리고 습속적 사용의 이치를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II. 陰陽五行思想

1. 음양

음양오행사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권에서 우주인식과 사상체계의 중심이 되어온 원리이다. 중국 과학 사상사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즉 중국 고유의 自然主義者들에 의해 고대로부터 발전되어 온 기본적 사상 내지는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는 五行說, 둘째는 우주에 있어서의 두개의 기본적인 힘(陰과陽)에 관한 이론, 그리고 세째는 정교한 符號의 체계인 『易經』의 과학적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원시과학적 용법이다.¹⁾

1) 조셉니담저, 李錫浩譯, 중국의 과학과 문명 II, 을유문화사, 1988, p.306.

陰陽의 原義는 본래 흐린 날과 개인 날을 의미하였다. 『詩經』에 陰字가 8개, 陽字는 18개 나오는데, 陰은 雨字와 連用된 것이 4개로서 天氣, 陰闇의 뜻이며 陽字의 11개는 햇볕이 따듯한 方位를 뜻하며 날씨가 맑아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발전하였다.²⁾ 음양은 태양의 兩氣이며 또 風雨와 晦明도 氣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精氣는 사람의 靈氣를 자극하여 六情·寒疾·熱疾 같은 신체적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精神作用과 自然변화를 함께 氣의 작용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氣란 첫째,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感覺的인 것이며 인간을 떠나 독립하지 못한다. 둘째, 山河山澤, 日月星辰에도 氣가 있다. 그것은 空間과 時間에 걸쳐 작용한다는 것이다. 시간·공간 즉 宇宙에 충만한 것이 氣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³⁾ 無極에서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天·地)이 되었다. 天 또는 上帝에 대한 신앙은 중국 고대 민속신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의 발달과 더불어 天觀念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주된 흐름은 역시 초월적,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내재적·인문적인 것으로의 이행이라고 생각된다. 司馬遷은 당시의 천문지식에 대하여 우러러 天을 觀象하고 굽혀서 地理를 法類하였다.⁴⁾ 하늘에는 日月이 있고 땅에는 陰陽이 있다. 하늘에는 五星이 있고, 땅에는 五行이 있다. 三光은 陰陽의 精이요, 氣는 땅에 근본하되 聖인이 이것을 統理한다.⁵⁾ 張橫渠는 우주의 본체를 太虛라고 하였고, 그 작용으로서 음양의 二氣가 있어 여기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氣一元論을 폈으며, 程明道도 통일체로서의 乾元을 내세웠으나, 程伊川은 氣의 세계에서 출발하면서도 氣와는 별도로 理의 세계를 생각하여 理와 氣를 확실히 구별하였다.

理와 氣는 인간의 신체나 희노애락의 情은 氣에서 성립되고, 도덕적으로 善한 性은 理가 내재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⁶⁾

君臣관계를 자연의 원리에 비유한다면 양과 음의 관계와 같고 天과 地의 관계로도 비유된다. 陽은 天道요 君道이며, 陰은 地道요 臣道로서 여기에서 군신관계는 君尊臣卑로 특징지워진다.⁷⁾

음양사상은 중국의 세계관에 중요한 많은 사상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음양의 관념은 복식의 복색 제도에도 연계되었다.

동양의복의 각 부위는 철학적 의미를 가졌으며 襟역시 그와 같아서 深衣를 예를 들어 보면, 衣部는 乾이요 裳部는 坤이니, 衣 있는 곳에 반드시 裳이 있고 乾은 坤을 統涉할 수 있으며, 衣가 裳을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乾은 위에 坤은 아래 있어 우주를 형성하는 것이니 동양철학의 근본을 의복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한다.⁸⁾

이상의 음양사상은 우주만물의 활동을 포괄적 리듬과 일정한 질서가 있으며 일종의 경험과학과 자연철학이다. 陰·陽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질이지만 단순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하는 精氣의 운동을 내포한 것이다.

2. 오행

우주에는 乾에 神功이 있고 坤에 德機가 있으며 乾坤 사이에 五氣가 있다. 乾은 天이요, 坤은 地요, 氣는 天氣니, 천기란 우주의 정기를 말함이요, 五氣란 天氣중에 있는 五行의 氣를 말함이다.⁹⁾

五行이란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를 말한다. 천지의 만물이 오행의 氣로 화생하여 형성되었다. 오행은 氣로는 오행의 五氣가 되고 物形으로는 天에 오행성이 있고 地에는 오행

2) 유명중, 중국사상사(Ⅰ)고대편, 이문출판사, 1989, p.329.

3) 상계서, p.330.

4) 이상은, 유가의 예악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0, p.26.

5) 유명중, 전계서, p.331.

6) 이상은, 전계서, p.56

7)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복복식, 수학사, 1991, p.11.

8) 박경자,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1983, p.37.

9) 김백만, 사주보감, 명문당, 1982, p.26.

물이 있는 것이다.¹⁰⁾ 『呂氏春秋』에서도 오행을 五氣라 하였다. 오기란 5가지 성질의 氣이며 이동 기는 늘 운동하고 유행하므로 오행이라 하였다. 오행의 본질은 모두 氣이며 음양 역시 氣이다.¹¹⁾ 「오행」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지만 B.C.100년경 『史記』를 저술하면서 사마천은 당시 유행하던 오행기원설을 전하였고, 오행가의 대표적 인물은 전국 말기의 鄒衍(B.C. 305-240)이라 하겠다. 오행에 관하여는 그 첫째는 水로 불리고, 둘째는 火로, 세째는 木으로, 네째는 金, 그리고 다섯째는 土이다. 水(의 자연의 성질)는 물체를 씻게 하고 落下한다. 火(의 자연의 성질)는 연소하는 것이다. 木(의 자연의 성질)은 曲而이나 곧은 바대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金(의 자연의 성질)은 鑄型에 따르는 성질이 있으며 이룩고 단단해진다. 土(의 자연의 성질)는 씨앗을 뿌린다는 점이다. 土(의 자연의 성질)는 씨앗을 뿌린다는 점이다. 土(의 자연의 성질)는 씨앗을 뿌린다는 점이다. 土(의 자연의 성질)는 씨앗을 뿌린다는 점이다.¹²⁾

이러한 5가지 원소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노란색은 땅을 나타내는 색이고, 검은색은 물을, 빨간색은 불을, 초록색은 나무를, 그리고 흰색은 쇠를 나타내는 색이었다.¹³⁾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오행설이란 우주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며 신화, 종교 등에도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종교의 성립과정과 그것이 목격하는 바를 요약하면, 도교는 고대 民間信仰을 기반으로 해서 神仙說을 중심하여 易理·陰陽·五行·의술·兵術·占星 등의 것을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유교의 이론을 받아들였다.¹⁴⁾ 또한 중국복장사의 시대구분을 보면 後漢制는 한민족고유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敬天崇祖의 古禮와 오행사상 유교 윤리상에 制服·朝服의 제도가 만들어졌다.¹⁵⁾

오행의 하나하나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행사상에서는 우주나 인간사회

의 모든 현상이 이러한 오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을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가지 기본색이라 하여 오색(五色) 또는 오채(五彩)라 불렀다.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의해서 오행의 원리에 따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表 1> 오행소속 일람표

| 오행 | 색 | 계절 | 방위 | 오상 | 天干 | 地支 |
|------|------|-------|--------|----|--------|----------|
| 목(木) | 청(靑) | 봄(春) | 동(東) | 仁 | 甲 乙 | 寅 卯 |
| 화(火) | 적(赤) | 여름(夏) | 남(南) | 禮 | 丙 丁 | 午 巳 |
| 토(土) | 황(黃) | 4계절 | 중앙(中央) | 信 | 戊 己 | 辰戌 丑未 |
| 금(金) | 백(白) | 가을(秋) | 서(西) | 義 | 庚 辛 | 申 酉 |
| 수(水) | 흑(黑) | 겨울(冬) | 북(北) | 智 | 壬 癸 | 子 亥 |

1) 오행의相生·相剋

오행에는 서로 생하는 상생(相生) 원리와 서로 극하는 상극(相剋) 원리가 있다.相生：木生火(木이 火를 생한다), 火生土(火가 土를 생한다), 土生金(土가 金을 생한다) 金生水(金이 水를 생한다), 水生木(水가 木을 생한다).

相剋：木剋土(木이 土를 剋한다), 水剋火(水가 火를 剋한다), 火剋金(火가 金을 剋한다).

金剋木(金이 木을 剋한다), 土剋水(土가 水를 剋한다).

2) 오행의 방위색

오행설이란 우주철학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기도 하다. 만물을 이 관점에서 생각하고

10) 상계시, p.36.

11) 유명중, 진계서, p.340.

12) 조셉니담, 진계서, p.342.

13) 파버비렌,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0, p.40.

14) 임영자, 한국종교보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5.

15) 杉本正作, 동양복장사상고, 중세권, 일본, 문화출판국, 1984, p.40.

분류하려는 요구가 중대함에 따라 여기에 맞추기 위하여 五帝가 특별히 현상되었다. 그들은 오색과 결합되었으며 동시에 우주의 오행을 특징짓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런 식으로 靑帝·赤帝·黃帝·白帝·黑帝가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이들의 제사는 1·2세기중 國家祭儀에 포함되었던 것이다.¹⁶⁾ 각 계절마다 五方向의 각 色神에 올리는 迎儀式에도 同一하게 적용되었다. 즉 봄에는 동쪽의 청제, 여름에는 남쪽의 적제, 季夏에는 중앙의 황제, 가을에는 서쪽의 백제, 겨울에는 북쪽에 흑제 등 각 神은 이 방향 색채대로 명명되었다.¹⁷⁾ 방위신은 방위에 따라 빛깔과 형태를 달리 하는데 중앙에는 黃龍, 동에는 靑龍, 서에는 白虎, 남에는 朱雀, 북에는 玄武를 각기 배치하였다.¹⁸⁾ 나라에서 지내는 五禮의 의식에서도 음양오행적 이치에 따랐다.

3) 오행의 계절색

인간의 육체는 본래 天·地의 일부로서 그 본성은 陰·陽과 같고 四時와 조화를 이루며 태양과 달이 밝게 비추어 준다. 네 계절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순환하고 바람과 비는 적당히 불고 내려 흘러가는 일이 없었다. 해와 달은 맑고 고요한 속에서 빛을 발하고 五星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였다.¹⁹⁾

四時의 변화를 月令은 오행의 盛衰에 원인한다고 주장한다. 월령에서 春季는 盛德이 在木하고, 夏季는 盛德이 在火하며, 秋季는 盛德이 在金하고, 冬季에는 盛德이 在水한다고 하였다.²⁰⁾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이 사시로 보았을 때 <봄>에 해당하고, 오색으로 보았을 때는 <청색>에 해당한다.²¹⁾

4) 오행의 간색

우리의 선조들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몸의 상반신은 양이고, 하반신은 음이라는 (陽上·陰下)의 원칙을 복색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衣正色·裳間色이라하여 상의는 양에 해당하는 정색을, 하의는 음에 해당하는 간색을 즐겨 입었다.²²⁾ 중국 고대에는 청·적·황·백·흑의 오색을 正色으로 紅·綠·靑·紫를 間色으로 하였다. 또한 『禮記』玉藻에 보면 衣는 정색, 裳은 간색으로 정해져 있다.²³⁾

채색이라 함은 예소에 이르되 金色이 白이기 때문에 金克木하니 木色 靑인 고로 청백간색은 벽(磬)이라하고, 木克土이기 때문에 土色 黃이니 청황간색은 녹색(綠)이라 하고, 土克水이기 때문에 水色 黑이니 황흑간색은 유(黝)라 하고 水克火이기 때문에 火色 赤이니 적흑간색은 자(紫)라 하고 火克金이니 金色 白이니 적백간색은 홍(紅)이다.

考工記에 이르되 청과 적은 文이라 하고 적과 백은 章이라 하며 벽과 흑은 보(黼)라 이르고 흑과 청은 불(黻)이라 하고 오채가 갖은 것은 수(繡)라 하니 대개 문은 등남에 속하고, 장은 서남에 속하고, 보는 서북에 속하고, 불은 동북에 속하고, 수는 중앙에 속하니, 황은 사방을 결한 正色이다. 그런고로 간색이 아니나 오채 같으므로서 이름은 이에 들이 서로 아끼는 감동이다. 글자로써 상고컨대 木生火가 청적간색이 되니 이른바 정(靑)이요, 火生土가 황적간색이 되니 이른바 훈(熏)이요, 土生金이 황백간색이 되니 이른바 규(珪)요, 이른바 돈이요, 金生水가 백흑간색이 되니 이른바 불(冪)이요 水生木이 청흑간색이 되니 이른바 암(黶), 참(黶)이다.²⁴⁾

16) 마이클로이, 고대중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1989, p.35.

17) 김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8, p.73.

18) 김기웅,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36.

19) 마이클로이, 고대중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1989, p.62.

20) 유명중, 진계서, p.334.

21)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자료선집(조선Ⅱ), 교문사, 1982, p.335.

22) 具佳衍, 얼과 문화, 색Ⅲ, 우리문화연구원, 1992, p.8.

2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137.

24) 상양환, 규합총서, 보진재, 1986, pp.143-144.

III. 복식에 나타난 五行色에 의한 習俗의 의미

1. 國運

무릇 帝王이 일어 나리 할 때는 반드시 祥瑞를 下民에게 먼저 보인다. 皇帝때 하늘이 먼저 큰 지렁이와 큰 청개구리를 보이므로 황제는 「土氣가 이겼다.」하고 토기가 이겼으므로 황색을 소중히 여겼으며 만사에 土를 본받았다. 禹때에 하늘이 먼저 秋冬같은 草木을 보였으므로 禹는 「木氣가 이겼다.」하였다. 목기가 이겼으므로 청색을 존중하고 만사 木을 본받았다. 湯때는 하늘이 金刀을 물에서 생하게 하였다. 湯이 「金氣가 이겼다.」고 하였다. 금기가 이겼으므로 백색을 존중하고 만사를 金에게 본받았다. 文王때에 하늘이 먼저 火을 보이고 赤鳥가 尸를 묻고 周社에 모였다. 문왕이 「火氣가 이겼다.」하였다. 화기가 이겼으므로 적색을 존중하고 만사를 火에서 본받았다. 火에 대신 하는 것은 水다. 하늘이 먼저 수기가 이김을 보이므로 흑색을 존중하고 만사를 水에 본받았다.²⁵⁾ 역시 正朝의 진통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순환에 순응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조화는 한 정권이 우주질서의 일부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明史』 輿服志에 “夏에서는 黑色, 殷에서는 白色, 周에서는 赤色, 秦에서는 黑色, 漢에서는 赤色, 唐에서는 黃色, 宋에서는 赤色을 숭상하였다. 明에서는 冠服을 제정하는데 周, 漢, 唐, 宋의 복색을 본받아서 赤色으로 하였다.”고 있다. 즉 주, 한, 송에서는 赤色을 숭상하였고明代에도 이를 따라 朝服을 赤色으로 정하였다.²⁶⁾

광민왕 6년 윤9월에 사천소감 우필흥이 상서하여 복색을 오행에 맞도록 개혁할 것을稟하였다. 즉 옥룡기에 이르기를우리나라가 백두에서 서

작하여 지리에 그치니, 그 勢는 水根水幹之地라 흑으로서 부모를 삼고, 청으로서 몸을 삼고 있다. 만약 風俗이 토에 順하면 昌하고 逆하면, 재앙을 받는다.

풍속이라 하는것은 君臣百姓 衣服冠蓋를 말함이다. 今後 文武百官은 黑衣青笠으로 하고, 승복은 黑巾大冠으로 하고, 여복은 黑羅로 하여 土風에 순응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공민왕이 이에 따랐다고 한다.²⁷⁾

영조 14년 8월에 白衣의 禁을 엄히 하라 했다. 이때 右參贊 이덕수가 올린 上疏의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고 동은 때에 있어 春이 되며 色에 있어서는 靑이 되는데, 풍속은 백색 입기를 좋아 하니 의당히 백색을 금하고 정색을 숭상해야한다. 하였거니와 전하께서도 이미 그 말에 따라 시행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만물은 동에서 시작하여 서에서 마치는 바 동방의 사람들이 서방의 색을 숭상하는 것은 有始有終을 위함인데 동방이라 하여 청색을 숭상하는 것은 실로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가 없는 것인즉 그대서는 안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풍속에 백색을 이루기를 수천년이나 되는것을 지금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²⁸⁾

이처럼 국가가 일어 나려 할 때는 것은 상서로운 조짐이 보인다하여 왕은 국가가 우세하기 위하여 오행의 영향에 따랐다. 오행의 복색은 시대에 따라 선택되어 왕조의 상징색으로 삼았다.

2. 婚姻

〈婚〉은 본래 〈昏〉이며 해가 진후에 〈禮〉를 치른다는 뜻이다. 〈姻〉은 여자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례한다〉는 뜻이다. 혼인과 저녁의 관계는 그 역사가 중국의 周代로 소급한다. 당시의 혼례예식은 남자가 해진 후 어둠을 때 여자집에 가서 예를 올렸는데 그 뜻은 陽이 陰을 맞이하는 것이라 밤에

25) 유명중, 진계서, p.338.

26) 조규화, 진계서, p.139.

27)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p.230.

28) 소황옥, 한국전통염직에 관한 문헌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83, p.139.

거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옷도 타고 가는 수레의 빛깔도 심지어 종자의 옷도 모두 겹었다 한다.²⁹⁾ 부인을 맞는 禮는 저녁을 직기로 하기 때문에 婚姻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신랑은 저녁때(昏)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는 그를 따라(因)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혼인이라고 부르며 昏時란 양이 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는데 婚역시 음양이 교차하는 때에 한나라는 誨이다.³⁰⁾

고려왕조로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동안 왕비로부터 일반민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던 <활옷>의 색채는 우주간에 운행하는 원기소는 만물의 주성분이 된다는 5원소를 오행이라 하고 금·목·수·화·토 즉 백·청·흑·적·황으로 색채에 뜻을 두었으며, 남녀를 남색, 홍색으로 하여 혼례식에서는 청실홍실이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음양의 관념으로 靑은 男, 紅은 女를 의미하여 사용하였다.³¹⁾ 남자는 관례때 청포를 입고 혼례때 신부는 綠衣紅裳을 입었다. 녹색도 동방의 木氣에 속하며 붉은색은 남방 火氣에 속하므로 목과 화가 상생이 되며 장수하고 부귀가 원만하도록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³²⁾ 腐夫는 朱筮에 黑團領 차림으로 기러기를 받들고 천천히 앞서 간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색을 사용할때 많은 경우에 있어 시각적인 이미지 보다는 음양오행에 따른 관념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복식에 나타난 색

복식분야는 그 시대의 색채문화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분야이다. 『신당서』에는 「고구려왕은五色 무늬의 옷을 입고 纁羅紗로 관을 만들며 가죽띠에는 모두 金釧을 하였다.」 「백제에서는 왕이 큰 소매의 자색 도포와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官員

은 그림 무늬의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짓고 서민은 붉은 빛이나 자색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³⁴⁾ 우리민족이 평상복으로 흰옷을 가장 즐겨 입었다. 그러나 혼례 등의 의식이 있을 때나 왕실복, 관복, 사대부가의 의복, 기타 특수직업(기생·무당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복식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갖추어 입었다. 먼저 색의 기본인 오색 자체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 청·적·황·백·흑의 오색천을 이어붙여서 만든 '색동' 저고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둘이나 명절 때 어린아이에게 만들어 입힌다. 또한 까치·두루마기'라 하여 선달 그림날 어린아이에게 오색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히는데 이 때도 양소매를 색동으로 하였다. 이처럼 색동은 오행사상에 따른 오색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색동을 사용한 의미는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가지색을 사용하므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고 어린아이의 수명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오색의 배치에 있어서도 오행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열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구해 왔다. 또한 그 목적에 따라 음양오행의 이치에 합당하게 의복을 갖추어 입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오행설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색의 옷을 입도록 하였다. 즉 자라나는 어린이는 생기와 번성을 상징하는 녹색 계통의 옷을 입혀 아무 탈없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였고 청장년층은 화기의 상징인 홍색계통을 주로 입었으며 노인층은 토기인 황색 계통과 금기인 백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

『삼국사기』에서는 통전을 인용하여 樂工과 無人の 의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악공들은 붉은 비단모자에 새깃을 장식하고 황색의 소매가 큰 옷에 붉은 비단띠를 둘렀으며, 통이 넓은 바지에 붉은 가죽신을 신고 오색끈을 매었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舞服에서도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궁중무용

29) 김용숙, 한국여속사, 민음사, 1990. pp.306-307.

30)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p.16.

31) 김영자,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403.

32) 구가연, 전계서, pp.8-9.

33) 이능화,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1973. p.107.

34) 김부식,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1. pp.171-172.

에 이르기까지 오행사상과 결부된 형식을 고수하였다.³⁵⁾

세종대왕때 『악학궤범』에 정해진 무희의 복색을 보면 오행사상에 강하게 지배받고 있음을 알겠다. 무희의 위치에 따라 복색이 달라 지는데 동방아가씨는 靑衣요, 서방아가씨는 白衣이며, 남방紅衣, 북방黑衣, 중앙黃衣을 입도록 정해놓고 있다.³⁶⁾

『규합중서』에 의하면 그 당시의 봉제, 의복관리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설하였다. 옷마르는 좋은 날은 다음과 같다. 甲子·乙丑·丙寅·丁卯·己巳·癸酉·甲戌·乙亥·丙辰·己丑·丁丑·己卯·庚辰·甲午·乙未·丙申·庚子·辛丑·癸卯·甲辰·戊申·己酉·癸丑·甲寅·乙卯·辛酉·等日³⁷⁾

이처럼 복식은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갖추어 있었다. 이것은 수명, 장수의 기원과 오색을 음양과 오행 상생의 원리에 맞게 사용하여 빈성을 상징하였다.

1) 적색(赤色)

적색은 태양, 불, 혈액의 색으로 原始시대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중요한 색으로 간주되었다. 음양 오행설의 적색은 따뜻한 곳이며, 만물이 무성하여 양생기가 왕성한 남방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직극적이며 능동적인 색으로 만물을 생산하는 양에 속하는 색을 뜻하였다. 옛날부터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치의 복색은 붉거나 푸르렀으며 이 복색은 음양설에서 비롯된다. 왕비만은 붉은 것을 숭상하고 그림을 많이 수놓은 옷을 입었으니 국관서민들은 감히 쓰지 못하더라.³⁸⁾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탕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는다.³⁹⁾ 또 붉은 도포와

까만 사모를 쓴 상을 그려 궁전의 접대문에 붙이기도 한다.⁴⁰⁾

‘여인은 紅’이란 말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소녀는 마땅히 홍색옷을 입어 젊음이 총만함을 표시한다는 말이다.⁴¹⁾ 적색은 귀신쫓는 민속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흉귀를 쫓는 의식인 계동난의 때에는 동자 48명이 가면을 쓰고 적색의상을 입었고 工人 20명이 적건과 적색의상을 사용하였다. 또 전염병이나 괴질이 유행할 때 이를 쫓기 위하여 붉은 옷을 입었으며 부락 입구에는 대나무 장대를 세우고 붉은 두루마기를 걸어 놓았다.⁴²⁾

시집갈 때 입는 때때옷도 이 병귀나 악귀예방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속학자들은 보고 있다. 시집갈 때 때때옷을 입는 것은 호사다마라 하여 악귀가 침입할 여지를 봉쇄하는 방편이며, 무당이 때때옷을 입는 것도 이 귀신과 대면해서 쫓기 위한 위력을 부리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병귀도 좋아하는 빛깔, 싫어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빛깔이 적색계통이다.⁴³⁾

2) 청색(靑色)

청색은 방위로는 동쪽에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 오행 중 목으로 하늘과 무성한 식물등을 상징하는 색이다. 태종은 재위 6년 윤 7월에 팔도의 각 군졸의 복색을 푸른옷으로 하라고 시달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고 동방색인 청색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영조실록 권 10에 임금은 모든 公卿, 선비, 서민을 막론하고 길복으로 푸른 옷을 입도록 하라고 명했다.⁴⁴⁾ 남녀들의 복식은 보통 남치마에 옥색저고리가 제복으로 되어 있다.⁴⁵⁾ 중국 고대에는 청색이

35) 구가연, 진계서, pp.7-8.

36) 이규태, 우리의 옷이야기, 기린원, 1991, p.98.

37) 정양완, 진계서, p.127.

38) 이능화, 진계서, p.226.

39) 홍성모, 동국세시기, 대양서적, 1973, p.87.

40) 홍성모, 상세서, p.37.

41) 진효강, 전통적인 배색의 진래에서 본 복장의 배색, 제3회 아세아복식학술회의 논문, 1984, p.15.

42) 구가연, 진계서, p.8.

43) 이규태, 진계서, p.148.

44) 상세서, p.98.

45) 김용숙, 진계서, p.232.

궁중 시녀의 의복색이었기 때문에 ‘청의’라는 말로써 시녀의 의미를 나타내었다.⁴⁶⁾

3) 황색(黃色)

황색은 오색의 중심색이다.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하며 4계절 모두에 연관되어 있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천하의 통치권자인 天子를 상징하는 색으로 다루어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임금만이 황색옷을 입을 수 있었다. 오행 중 토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한다. ‘누른 빛은 中의 색으로 왕의 복색이라 하였고 『唐史』에는 천자의 옷에 적색, 황색을 사용하므로 士庶人은 세가지 누른 빛으로는 옷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라’ 하였다.⁴⁷⁾ 황색의 ‘中之色 君之色’이라 하여 태조대에 와서 황색의 禁色은 표면화하였다. 이 황색의 금령이 나오게 된 동기는 애초에 황색을 중국 황제의 색이라 하여 금령을 내린 것이다.⁴⁸⁾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황색을 중국 황제의 복색이라 하여 일반 士庶人은 물론 왕까지도 忌諱했었다.⁴⁹⁾ 속담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은 四天王의 神像이라고도 한다.⁵⁰⁾

4) 백색(白色)

흰색은 서쪽과 가을에 해당한다.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흰색을 신중하게 여겼다. 또한 흰색은 순결·청렴 등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대표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白衣는 우리가 상고 시대부터 입어오던 복색이다. 『당서』 신라전에 이르기를 “조복은 흰 것을 숭

상하고 산신에 제사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진역의 여러 종족은 모두 백색을 숭상하고 특히 백의를 좋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다. 백색은 태양 광명의 표상으로서 淨潔·純一·明朗·嚴肅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태양숭배민인 그들은 백을 신성색으로 존상한 것이다. 그래서 예복 특히 제복은 반드시 백색을 사용하여 경건의 뜻을 나타내다가 이 풍속이 차차 일반화하여 서민의 상복도 모두 백색을 쓰게 된 것이다.⁵¹⁾ 우리민족을 「白衣民族」이라고 하고 그 백의의 습속은 흔히 喪服制度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것이다.⁵²⁾ 흰색을 일상 의복의 재료로 삼는 까닭에 「在國衣尙白」이라든가 「衣服潔清」이라든가 또 「衣服淨潔」등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⁵³⁾ 조선인의 옷색은 거의가 백색이고 옥색이었다. 수차에 걸친 백의금령에도 굴하지 않고 상류계층과 서인층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백의를 입은 것은 白色美好尙의 민족성과 생활德目이었던 청렴·결백·정빈의 정신생활의 상징이다.⁵⁴⁾ 어린아이는 목욕을 시키고 새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역시 돌날까지는 흰옷이다. 이는 백날안에 색옷을 안 입히고 순백으로만 하는 아기의 옷색같은 청정과 신성, 장수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⁵⁵⁾

5) 흑색(黑色)

흑색의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에 속한다. 오행 중 水로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물과 같이 陰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에 우필홍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물이 어미가 되고 나무가 즐거가 되니 마땅히 검은

46) 조규화, 전게서, p.136.

47) 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상고, 고려편), 동양복식연구원, 1985, p.215.

48) 김동욱, 전게서, p.353.

49)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6, p.138.

50) 홍성모, 전게서, 1973, p.37.

51) 김영숙, 전게서, p.390.

52) 유희경, 전게서, p.550.

53)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p.300.

54) 박경자, 전게서, p.146.

55) 김용숙, 전게서, p.356.

옷을 입고 푸른 샷갓을 써야 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그를 좇았다.⁵⁶⁾ 朝官과 士人들에게 명하여 흑의 입고 백의를 금하라 하다. 동방이 흰색을 숭상하여 국전에 비록 백색의 금령이 있으나 그대도 이루어진 습성을 따르고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인금이 번역시킬 것을 생각하시고 드디어 이 제도를 정하신 것이다.⁵⁷⁾

僮服이 흑색이어서 緇(黑)衣는 승려의 신분유 나타내는 말이 되었고⁵⁸⁾ 검은 옷을 입은 巫(부낭)가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 내려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靈媒의 역할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오행색은 자기의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였다. 또 신분,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 습속 등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그 색의 특징과 적절한 색의 옷을 입도록 하였다.

I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복색에서 본 음양오행사상과 오행색 의미를 살펴 보고 습속적 사용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음양오행사상은 우주의 자연적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자연철학이다. 음양의 원리 오행의 원리는 우주의 만물의 활동을 天·地·人의 통일체로서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창조적 의미가 담겨 있다.
2. 오색(靑·赤·黃·白·黑)은 그 목적, 계급, 남녀, 인령 등에 따라 오행설을 적용하여 옷을 입도록 하였다. 또 동·서·남·북·중앙과 화·수·목·금·토의 상관관계는 방위·계절에 자연스럽게 배당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순환하여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색 구별은 正色과 間色의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오색을 음양과 相生의 원리에 맞게 조화하여 국가의 興盛, 인간의 장수, 복 등의 기원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4. 황색은 오색의 중심색이며,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되며, 오행 중 토이다. 황색은 천자의 색이라 하여 왕이 주로 입었다. 적색은 방위로는 남쪽에, 계절은 여름에 해당하며, 오행 중 화이다. 생명력 있는 색으로 왕, 왕비, 높은 벼슬아치의 복색으로 사용되었고 귀신과 재액을 물리치는 색이었다. 청색은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며 오행 중 목이다. 만물이 생성하는 무성함을 상징하였다. 백색은 서쪽과 가을에 해당하며 오행중 금이다. 백색에 대한 여러 번의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색은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애용된 민족 상징인 청렴, 결백의 전통 복색이었다. 흑색은 북쪽과 겨울에 해당하며 오행 중 수이다.

이상에서 음양오행사상이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다. 오행색은 그 목적과 계급에 따라 적절한 색의 옷을 입도록 하였고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전통 습속 의미로 색채 개념이 발전해 왔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ive Elements Colours in the Costume

Kang Youn Sook

Influenced by the official uniform system of China, the colour culture of Korea has changed with time.

The ancient colour has included the philosophical conception as well as the meaning of thoughts. Forming its tradition, the colour has been accepted in usual life.

The philosophy of the Five Elements has

56) 손강자, 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조선III), 교문사, 1982, p.172.

57) 상세서, 조선권II, p.248.

58) 조규화, 진개서, p.136.

been developed in the area of Oriental culture and it has influenced to the colour of costume.

The five colours(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as the Five Elements colours have distinguished the social position. Owing to the fact, the colour costume has preserved the important meaning.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the five colours of costume told its purpose, social position and age.

Moreover the relationship among the Five Elements, the direction and the season have been applied to it with time.

Yellow and red have been usually used by kings and high ranking officials. white has been the basic colour for traditional Korean clothes, which has indicated the integrity symbolizing our race.

The Five Elements Colours preserving the theory of Korean the Five Elements have been the con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colour and they have been developing as the meaning of custom.

參 考 文 獻

- 1) 金基雄, 고구려의 벽화고분해설, 韓國의 服飾, 1982.
- 2) 金東旭,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 3) 金富軾,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91.
- 4) 金用淑, 한국역속사, 민음사, 1990.
- 5) 金榮子, 한국의 미적 고찰, 韓國의 服飾, 1982.
- 6)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上古·高麗篇), 東洋服飾研究院, 1985.
- 7) 金泳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研究,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8.
- 8) 金栢滿, 四柱寶鑑, 명문당, 1982.
- 9) 具佳衍, 일과 문화 색 II, 우리문화연구원, 1992.
- 10)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1983.
- 11) 소황옥, 韓國傳統染織에 관한 文獻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83.
- 12) 孫京子·金英淑共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朝鮮編 II, III), 敎文社, 1982.
- 13) 李能和, 朝鮮女俗考, 大洋書籍, 1973.
- 14) 李相殷, 儒家의 禮樂思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0.
- 15) 李圭泰, 우리의 옷 이야기, 기린원, 1991.
- 16) 조세니담 著, 李錫浩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乙酉文化社, 1988.
- 17) 李如星, 朝鮮服飾考, 百陽堂
- 18)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 學研文化社, 1992.
- 19) 任榮子, 韓國宗教服飾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9.
- 20) 劉明鍾, 中國思想史(I)古代篇, 以文出版社, 1989.
- 21) 劉頌玉著,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1991.
- 2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6.
- 23) 정양완, 閩閩叢書, 寶晉齋, 1986.
- 24) 曹圭和著, 服飾美學, 修學社, 1982.
- 25) 陳曉岡, 傳統的인 配色的 傳來에 本 服裝의 配色, 한국복식학회지 제3회아시아복식학술회의, 1984.
- 26) 洪錫謨, 東國歲時記, 大洋書籍, 1973.
- 27) 마이클로이 / 이성규譯, 古代 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1989.
- 28)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故 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 29) 파버·비렌지음 金化中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0.